

세계의 '문화적 가치' 동참의 대장정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

'한국' 과 '세계' 를 잇는 문화올림픽아드

출판계, '우리 책 문화의 국제적 도약' 기대

“도서뿐만 아닌 문화 전반의 축제가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을 살펴보지 않고서 무작정 발을 들여 놓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방한한 유르겐 보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조직위원장이 <출판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관람객들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도서전의 특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단, ‘프랑크푸르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만한 언급이다. 2003년 10월 주빈국 참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 2년. 그동안 숏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긴 했으나, 차질없이 준비를 해온 끝에 이제 D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날씨가 다가올수록 주빈국 조직위는 물론, 출판계를 비롯한 문화계는 인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인 ‘주빈국 한국’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고 있다.

적 보급CIRCULATION’ 등 현지인들에게 각인시키고 남겨주고 와야 할 것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담론 생성, 확대 △ 자동차, 핸드폰 등 한국의 수출품 배후에 어른거리는 문화적 아우라 △ 88올림픽, 월드컵 등 한국의 여운을 연장, 유럽에서의 한류韓流형성 △ ‘가보고 싶은’ 한국 이미지를 통한 관광 효과를 기하는 한편, △ 행사 기억의 영원한 랜드마크로서 프랑크푸르트 공원에 ‘한국의 정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의 '주빈국 자격 가이드라인' 합치... '문화국가' 인정받은 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가히 세계 최고·최대의 문화 올림픽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11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6,700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스 위원장의 말처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물음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김우창 주빈국 조직위원장은 “우리가 독일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진단에 합치될 것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내건 비전은 일단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란 물음에 대해 △ 세계 7대 출판강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책 콘텐츠 △ 역동적인 민주주의, 첨단 IT, 동시대 한국문화와 같은 동적인 것 △ 한글, 전통문화, 현재에도 작동하는 유교 그리고 우리의 선佛불교와 같은 정적인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출판의 세계 시장 진입, 한국문학의 세계

주빈국관·한국관은...

■ 주빈국관

한국의 출판문화 유산과 대표적 작가·작품을 알리는 곳이다. ‘작가와 의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며, 책을 뛰어넘는 문화적 콘셉트(책+예술+IT)로 한국문화를 알린다. 행사 전체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게 될 주빈국관은 750여 평의 전시공간에 6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 한국관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관은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부스가 자리잡는 출판 비즈니스의 장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시장인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 제6관의 일부를 사용하며, 1,008 평방미터(303평)의 면적에 달한다.

개 참가자들이 자사 출판물 및 상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34만 권의 책과 8만 권의 신간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보다 더 많은 1만 2,00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는 등 세계 언론의 관심 또한 뜨겁다.

더욱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단순히 '도서전'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온갖 출판물이 거래되는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각종 세미나와 문화적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특히 이 행사의 중심을 이루며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주빈국이다. 1976년 라틴아메리카를 시작으로 80년 아프리카, 88년부터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주빈국가로 참가하면서 출판을 위시한 자국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주빈국가로 한국이 선정된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에 버금가는 역사적 쾌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빈국 유치 과정에 참여했던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독일측에서 먼저 우리 출판계에 주빈국 유치를 제의해 왔다"고 전했다. 독일 대통령이 한국의 월드컵 응원문화를 TV로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폴커 노이만 당시 조직위원장에게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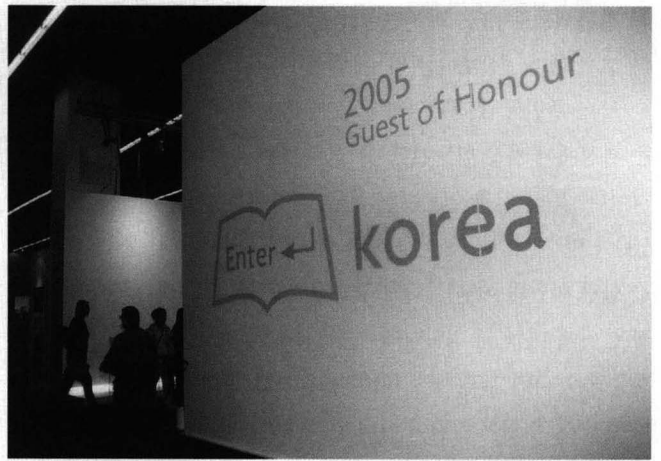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독일이 나름대로 설정한 '주빈국 자격'이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성숙돼야 하며, 상당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룬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화계에선 "주빈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문화국가임을 독일 등 선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럽인과 세계인 속 스며드는 우리 문화' 기대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한국을 빠른 시간 내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 그리고 축구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는 보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의 말도 그런 맥락인 셈이다. 보스 위원장은 방한 당시 "인터넷과 영상매체 발달로 한국 출판시장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라며 "교보문고에서 핫트랙스란 큰 음반매장을 봤는데, 독일도 서점에서 책 이외의 것을 취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출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일측은 처음부터 일종의 '주빈국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자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뿐 아니라, 독일 현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란 전제 조건이다.

주빈국조직위원회 역시 이번 행사에 임하는 정신가치적 측면, 즉 '소프트웨어'의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스밍과 대화'란 슬로건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문화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유럽인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를 위한 내면화, 보편화, 과거와 현재간의 균형감 등을 실천 방안으로 들었다. 세계인, 유럽인, 독일인의 심성mind, 취미taste 속에 한국을 '스며들게' 하고, 모든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독일인,



유럽인의 시각에서 판정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조직위측은 "이를 위해 출판, 문학, 문화예술 등 각 문화 영역의 행사를 상호 연동시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라히프치히 문학행사를 기점으로 독일 전역에서 '한국문화' 붐을 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준비과정 구설수·우여곡절 딛고 '비교적 준비 잘된 편' 평가

이같은 준비를 주도해 온 조직위 역시 진행 과정에서 때론 안팎의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초대 위원장의 사퇴, 추진 주체의 독단적 행태 등에 대한 비판 등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즈음의 대체적인 평가는 "그런대로 잘 돼가는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한국의 주빈국 준비과정을 지켜본 독일 현지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는 주빈국 조직위의 활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홀거 에링 부조직위원장의 경우 황지우 총감독에 대해 "전형적인 동양의 인텔리겐치아"란 인상평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독일 현지 관계자들은 또 "지난해 한국관을 보니 설계나 구조가 너무나 미려하고 뛰어났다"며 "그런만큼 이번 주빈국 행사도 잘 치러낼 것으로 믿는다"는 분위기다. 이 대목에서 흔히 비교되는 것은 2002년 주빈국 리투아니아의 사례다. 당시 현지를 참관했던 출판계의 한 인사는 "리투아니아는 나라도 작을만큼 우리 돈으로 대략 50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각

국 참관객들로부터 '작지만 아름답다(Small but Fine)'는 평가를 얻었다"고 전했다. '질보다는 양'이 돼야 한다는 고언인 셈이다.

주빈국 조직위원회와 출판계가 주빈국 행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사회 일각의 냉소어린 시각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독일 현지에서 있었던 작품낭독회에 100여 명 가량의 청중이 참석한 데 대해 "현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함람 미달의 이벤트"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우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 국가의 작가들이 작품낭독회를 갖는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참석할 것 같은가"고 반문했다. 다시 말해 '100여 명밖이 아니라 100여 명씩'이라고 해야 할 만큼 독일인들이 우리 작가와 작품에 보인 관심은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번역문화 활성화 통해 우리 문학 세계진출의 기회도

'관객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독일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요지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됐다. 보스 위원장은 <출판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낭독회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훌륭한 성과"라며 "독일언론들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독일을 찾는 도서전 시기를 위해 자신들의 정보를 아껴두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문화계 및 출판계 관계자들은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특히 '번역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한 중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그동안 이렇다할 만큼 번역, 소개된 책이 없었으니 해외시장에서 더욱 우리 책이 외면당했던 현실"이라며 "해외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 번역 또한 게을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전은 그런 악순환을 깨뜨리는 좋은 기회란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위가 추진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은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직위측은 "900여 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공모, 1,000여 종의 책을 출판분야 2개월에 걸쳐 8차례의 선정회의를 거쳤다"며 "특히 24명의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한국의 책 100 선정위원회'를 꾸려 장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각 장르별로 10개 분야를 골라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반영하고, 학문적 가치가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번역이 가능하되, 해외 독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랐다고 한다.

물론 선정 기준이나 도서 종류를 둔 논란 또한 끊이지 않았다. 작품가치나 한국문학의 대표성 등에서 함람미달이란 지적도 일었다. 그러나 번역사업에 앞장섰던 진형준 한국문학번역원장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도서전이 끝난 후에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전 계기로 출판계 화학적 통합 이뤄야' 목소리

이번 주빈국 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 기금을 합해 150

억 원에 달한다. 특히 출판계로선 자금조성과정에서 입장과 이해가 다소 엇갈리는 업종이나 분야를 망라하고 광범위한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출판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른바 '단행본'이니, '전집류'니 하는 도식적인 구분을 뛰어넘어 범 출판계 차원에서 십시일반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주빈국 행사는 우리 문화의 대외적 보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출판계의 정서를 합치시키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이는 '포스트 주빈국'의 비전과도 맥이 통하는 대목이다. 출협의 또다른 관계자는 "도서전 참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서전이 끝난 후 출판계의 화합적 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작가들과 도서가 더 많은 국제적 기회를 얻으며, 해외 출판사들과의 유대관계를 다지는 것이 정작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창 조직위원장은 이에 관해 좀더 절실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조직위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명실상부한 세계화를 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행여 우리 출판계의 부끄러운 점을 보여줘선 안 되며, 우리 출판의 향후 세계화 가능성과 관련, 다소의 과장을 보태자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기로에서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빈국 한국' 과연 성공할 것인가...국내의 시선 집중

출판계 안팎에선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약 1억 달러 정도의 저작권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참가 출판사들이 책을 파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좀더 차원높은 국제 도서문화 풍토와 환경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정신적 차원'의 뜻있는 견문의 기회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정일 경희대 교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았는가, 한국이란 나라를 잘 홍보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갱신을 진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을 포함한 서구사회, 나아가 세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동의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우리 역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도서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보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은 방한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주빈국 프로그램에 대한 덕담을 잊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액티브한 프로그램이란 느낌을 받았다"는 그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주빈국 행사를 마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 말이 단순히 '한 외국인의 듣기좋은 수사'에 그칠지는 행사가 끝난 후 판가름날 것이란 게 '주빈국 한국'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은주**

(사진제공 :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출판저널 편집부